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⑥

2014년 10월 29일(수), 오후 2~4시

# 조선시대 김해지역의 유교문화

김 훈 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⑥

## 조선시대 김해지역의 유교문화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 I. 머리말

김해지역의 전통문화라고 하면 가야문화를 우선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무덤을 비롯한 가야문화의 유적이 김해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이다. 김수로왕이 세운 나라는 이미 천오백여 년 전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후 김해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발달했다. 김해지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유교문화는 아직도 우리의 생활과 심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글은 김해지역에 남아있는 유교문화의 흔적을 더듬어보면서 이 지역의 유교문화를 살핀다.

## II. 향교 중심의 유교문화

김해지역의 유교문화를 이끌어 간 중심에는 향교鄉校가 있었다. 김해향교가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곡李穀(1298~1351)이 쓴 「김해부향교수헌기 金海府鄉校水軒記」라는 글이 있어, 이 시기에는 이미 김해향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94년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김해향교는 이 지역 교육의 중심 기구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문화의 중심이기도 했다.



김해향교

향교는 제사와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대성전大成殿은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뛰어난 유학자들을 제사지내는 곳이고, 명륜당明倫堂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동·서재東·西齋는 학생들이 기숙하는 곳인데, 향교의 학생 숫자는 각 고

을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해는 도호부都護府이기에 70명이 정원이었다. 교관은 교수教授(중6품)와 훈도訓導(중9품)가 파견되었다. 향교 교육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수령이다. 김해는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아졌고, 이에 무관 출신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아마도 향교 교육에 득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향교 교육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와 작문作文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거 응시였기 때문이다. 향교 교육을 받으면서 소과小科에 응시하였고,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진사가 되면 성균관에 유학하였다. 성균관에서 일정한 기간 교육을 마치고 나면 대과大科에 응시할 수 있었다. 대과에 합격하면 비로소 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대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생원·진사라는 신분으로 만족해야 했다. 김해 향교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숫자의 생원·진사가 배출되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는 대과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었다.

고려시대까지 지방의 지식인 사회는 승려 중심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 교육이 발달하면서 전국 각지에 많은 수의 유교적 지식인들이 자라났다. 이들은 서서히 불교문화 혹은 고려시대까지의 전통문화를 대신하는 유교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보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라는 책에 실린 유교적 상제례喪祭禮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김해 지역에도 많은 수의 유교적 지식인이 등장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유교적 상제례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커다란 문화적 전환이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향교가 있었다.

### Ⅲ. 재지사족이 주도한 유교문화

#### 1. 김해 회로당

김해 향교 출신의 관료들은 대부분 한양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고 정착하였다. 이들은 이후 김해 지역의 유교문화 발달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는 않았다. 김해 지역의 유교문화 발달에 기여하는 인물들은 오히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지방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다. 이런 부류의 인물들을 가리켜 재지사족在地土族이라고 한다. 향촌사회에 거주하는 유교적 지식인이라는 의미이다. 이후 재지사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벼슬을 한 이들 가운데서도 퇴직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점차 많아졌다. 이들 역시 재지사족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조선왕조에 들어 유교 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재지사족의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양적으로 성장한 재지사족은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들의 결집을 모색하였다. 이전부터 이들은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15세기 후반 무렵에는 이 족당적族黨的 결집에 더해 향당적鄉黨的 결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같은 고을에 거주하는 재지사족끼리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고을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했다. 그들 스스로는 고을의 미풍양속을 책임지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고 하였다. 자신들이 유교적인 윤리도덕의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백성들도 같은 길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이전까지 유교적 지식인의 가정 내부에 머물던 유교문화를 향촌사회 전체에 확대시키려 한 것이다. 향사례鄉射禮나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시행이 대표적인 실천 운동이었다.

김해 지역 재지사족의 향당적 결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김일손金駟孫(1464~1498)이 쓴 「회로당기會老堂記」라는 글이다. 회로당會老堂은 고을 부

로父老들이 모이는 집이라는 뜻인데, 당시 김해를 대표하는 부로는 전의성헌 前義城縣令 김계금金係錦<sup>1)</sup>, 전청산현감前靑山縣監 백계영白啓英, 전인의 前引儀<sup>2)</sup> 배형裴炯, 전참군前參軍<sup>3)</sup> 송숙형宋叔亨, 진사進士 김백견金伯堅 등 5명이었다. 15세기 말엽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김해 지역의 재지사족들이 결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백견은 김일손의 종형從兄이니, 김일손 역시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물이었다.

## 2. 산해정과 신산서원

16세기 이후 각 지역의 재지사족은 점차 학연적學緣的 결집을 강화해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방사회의 유교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문적 교류를 통한 결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지사족이 학연으로 뭉어지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했다. 김해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물로 남명南冥 조식曹植(1501~1572)이 있었다.

조식은 22세 때 김해에 사는 23세의 남평 조씨와 결혼하였고, 30세에 처가가 있는 김해 탄동炭洞으로 이사하여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강학講學에 힘썼다. 그는 이곳에서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거대한 정신세계를 추구하였다. 이후 1548년에 고향인 삼가三嘉로 돌아갈 때까지 18년 동안 김해에 머물렀다. 조식이 머무는 동안 김해는 당시 조선왕조 유교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를 찾아오는 벗들과 학생들은 전국에 걸쳐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인물들이 특히 많았는데, 당연히 김해의 유학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김해 지역에 조식의 학통을 이을만한 제자는 없었다. 그러나 조식 사후에 그를 제향祭享하는 대표적인 서원 가운데 하나가 김해에 세워졌다. 1588년(선조

1) 1454년(단종 2) 문과 급제. 1456년(세조 2) 사육신 사건 이후 낙향.

2) 通禮院의 중6품 관직

3) 정7품의 軍職.



신산서원

21)에 김해부사가 향인鄉人들과 함께 산해정 곁에 서원 건립하였으나 왜란으로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안희安熹, 황세열黃世烈, 허경운許景胤 등이 주도하여 1609년(광해군 1년)에 공사를 마쳤고, 그해 신산서원新山書院으로 사액賜額되었다. 대원군 때

훼철되었다가 1983년에 산해정이 중건되었고, 1998년 신산서원이 복원되면서 산해정은 신산서원의 강당이 되었다.

서원도 향교와 마찬가지로 제사와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서원의 제사는 그 대상이 고을과 연고가 있는 선현先賢에 제한된다. 신산서원에는 조식과 함께 그의 벗인 송계松溪 신계성申季誠(1499~1562)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신계성은 밀양 사람인데, 조식이 산해정에 머물 때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였던 학자였다. 이후 신산서원에 위패 봉안이 거론되었던 인물로는 조식의 제자인 김우옹金宇顥(1540~1603)과 정구鄭逵(1543~1620)가 있었다. 산해정에서 조식에게 배웠던 대표적인 문인인데, 그들은 모두 성주星州 출신이다. 신산서원에 김해 지역의 학자를 배향配享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조식의 학문을 계승할만한 인물이 없었던 모양이다.

서원 교육과 향교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서원 교육의 이중적 성격에 있다. 조선 시대 유교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과거 응시였다. 이 점에서 서원은 향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은 동시에 도학道學 혹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과거 응시가 아닌 인격 수양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교 교육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와 작문 능력을 기르는 데 힘을 쏟았다. 서원에서는 이와 함께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심성心性 수



양을 강조했다. 과거 시험을 보는 데는 필요가 없더라도 훌륭한 유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강조하였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애초부터 과거 응시에는 뜻을 두지 않는 이도 있었다. 향교 교육에 비해 서원 교육에서는 학문적 자율성이 훨씬 높아졌다.

## IV. 문중 중심의 유교 문화

### 1. 사충단



사충단

1592년의 임진왜란은 조선 전역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지만, 김해 지역은 특히 심했다. 임진왜란 발발과 동시에 점령된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군의 지배하에 있었다. 왜란이 김해 지역의 유교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왜

군의 침입에 맞선 최초의 의병義兵이 김해에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동래성을 점령한 다음날 왜군들이 김해로 몰려오자 송빈宋賓(1542~1592), 김득기金得器(1549~1592), 이대형李大亨(1543~1592), 유식柳湜(1552~1592) 등이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김해읍성을 방어하다 전사하였다. 왜란이 끝난 직후 이들의 충절이 알려지자 국가에서는 벼슬을 추증追贈하였다. 김해 지역에서 이들을 추송追崇하는 사업은 그 후 백여 년 뒤에야 이루어졌다.

숙종 때 부사府使 이봉상李鳳祥의 발의로 진례면 신안리에 송빈, 김득기, 이대형 세 사람을 제향하는 사당[충렬사忠烈祠 혹은 송담사松潭祠]이 세워졌다. 그 후 한때 훼손되기도 했으나 다시 건립되어 송담서원松潭書院이 되었



다. 1833년(순조 33)에는 표충사表忠祠로 사액되었다. 대원군 때 송담서원 역시 철폐되었으나, 당시 부사 정현석이 사충단四忠壇을 건립하여 제향을 이어나갔다. 이때부터 유식도 함께 제향하였다. 1933년에 김해사충단 중건기성회重建期成會 조직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현식, 송의학, 김한용, 유관영의 네 사람이 위원이었다. 현재 동상동에 세워진 건물은 1977년에 이 건된 것이다.

처음 충렬사를 세운 주체는 국가였다.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왕조는 충절忠節이라는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국왕 중심의 국가체제를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충절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김해 지역에서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네 사람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사충단의 변천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문중門中이 추송 사업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후 국가에서는 충절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의 부흥을 꾀하였고, 지방사회에서는 문중을 중심으로 선조들의 현창에 힘을 쏟고 있었다. 김해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충단은 국가와 문중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대표적인 기념물이었다.

## 2. 김해의 문중서원

18세기 이후 각지에서는 문중서원이 발달하였다. 원래 서원은 그 고을과 인연이 있는 뛰어난 학자를 제향하는 곳이었다. 17세기 후반기 이후 국가에서 충절을 강조하면서 충절인忠節人을 제향하는 서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원에서 제향하는 인물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앞서 설명한 송담서원 역시 그러한 서원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이후 문중의 발달이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문중서원의 발달을 가져왔다. 각 문중마다 선조 가운데서 도학이나 충절을 이야기할 수 인물을 발굴하는 데 분주하였다. 어떤 내용이든 그럴듯한 명분만 내세울 수 있다면 선조를 제향하는 서원을 세웠다. 김

해에서도 그러한 서원이 세워졌다.

상동면 우계리에 자리한 구천서원龜川書院은 1822년에 허경운(1573~1646)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그는 왜란 때는 도굴된 수로왕릉을 수리하였으며, 병자호란 때는 창의문倡義文을 지었다. 항상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에 심취하였고, 오현五賢의 문묘종사를 청하였다. 임난 때 소실된 신산서원을 재건했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역시 대원군 때 훼손되었다가, 1898년 후손들이 재사齋舍를 지어 제향을 이어갔다. 1996년에 서원을 복원하였다.



구천서원

미양서원薇陽書院은 진영읍에 있다. 1832년에 김계금(1405~1493)을 제향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앞서 본 김일손의 「회로당기」에 김해를 대표하는 재지사족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현재는 1915년에 간행된 김계금의 문집인 「서강일고西岡逸稿」의 책판冊板을 보관하는 건물을 짓고 미양서원이라는 편액을 걸어두고 있다.

삼방동에는 예암서원禮巖書院이 있다. 조이추曹爾樞(1661~1707)를 제향한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고을 향약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고을의 풍속을 크게 바꾸었다고 한다. 1709년에 예암사라는 사당을 지었다가, 1822년에 예암서원으로 바뀌었다. 대원군 때 훼손된 것을 1978년에 복원하였다. 1995년에

김해시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었고, 2005년 현재의 자리에 중건하였다. 이외에도 1811년에 조구령曹九齡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한 물봉서원勿峰書院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3. 허전과 안언호

김해에서 몇몇 문중을 중심으로 유교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을 때, 이 지역 유교문화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났다. 1864년(고종 1)에 68세의 성재性齋 허전許傳(1797~1886)이라는 큰 학자가 김해부사가 되었다. 그는 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계승되는 성호학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근기近畿 남인계南人係에 속하는 인물이라 이황과 함께 조식의 학문적 전통도 존중하였다.

허전은 2년여 동안의 부사 시절에 향교의 교생들과 향음주례를 행하였고, 신산서원의 원장이 되어 그곳에서 강학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거처를 개방하여 제자들을 받아들이자 인근의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의 문인록에 약 500명 가량의 문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0명 정도가 김해 출신이다. 함안의 70명 다음으로 많다. 김해 출신의 제자로는 대눌大訥 노상익盧相益(1849~1941)·소눌小訥 노상직盧相稷(1855~1931) 형제와 예강禮岡 안언호安彦浩(1853~1943)가 대표적이다. 금곡金谷 출신인 노씨 형제들은 이후 각각 창녕과 밀양으로 이주하였다. 시례詩禮 출신인 안언호는 평생을 김해에서 보내면서 김해 지역뿐만 아니라 강우江右 지역 유교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 V. 맺음말

20세기에 들어 김해는 처음으로 자기 고장 출신의 걸출한 유학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안언호가 살던 시대는 유교문화가 저물어갈 때였다. 서구의 근대문

화가 도입되면서 유교문화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문중과 가정에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이미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이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21세기인 현재에는 가정과 문중 중심의 유교문화조차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심성과 생활양식 속에는 아직도 유교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1917년에 창건되어 현재까지도 명맥을 잇고 있는 관동리 덕정마을의 월봉서당月峰書堂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안언호와 함께 김해 지역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던 월헌月軒 이보림李普林(1903~1972)과 그의 아들 화재華齋 이우섭李雨燮(1931~2007)을 거쳐 손자인 이준규 교수까지 이어지는 유교 경전 강독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No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웅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의 선물, 역사도시 김해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가야문화권 박물관 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조선시대 김해지역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의 축성과 그 의의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